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6월 11일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자세히 찾기'를 해 보았어요. 첫째 줄에서는 '표제어'와 '웃음', '포함', 둘째 줄에는 '뜻풀이'와 '크게', '포함'을 조건으로 두고 찾기를 했더니 '너털웃음'부터 '웃음집'까지 표제어에 '웃음'이 포함되고 뜻풀이에 '크게'가 포함된 단어 여섯 개를 찾아 주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커요.



오늘은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수어사전'과 '어문 규범'을 안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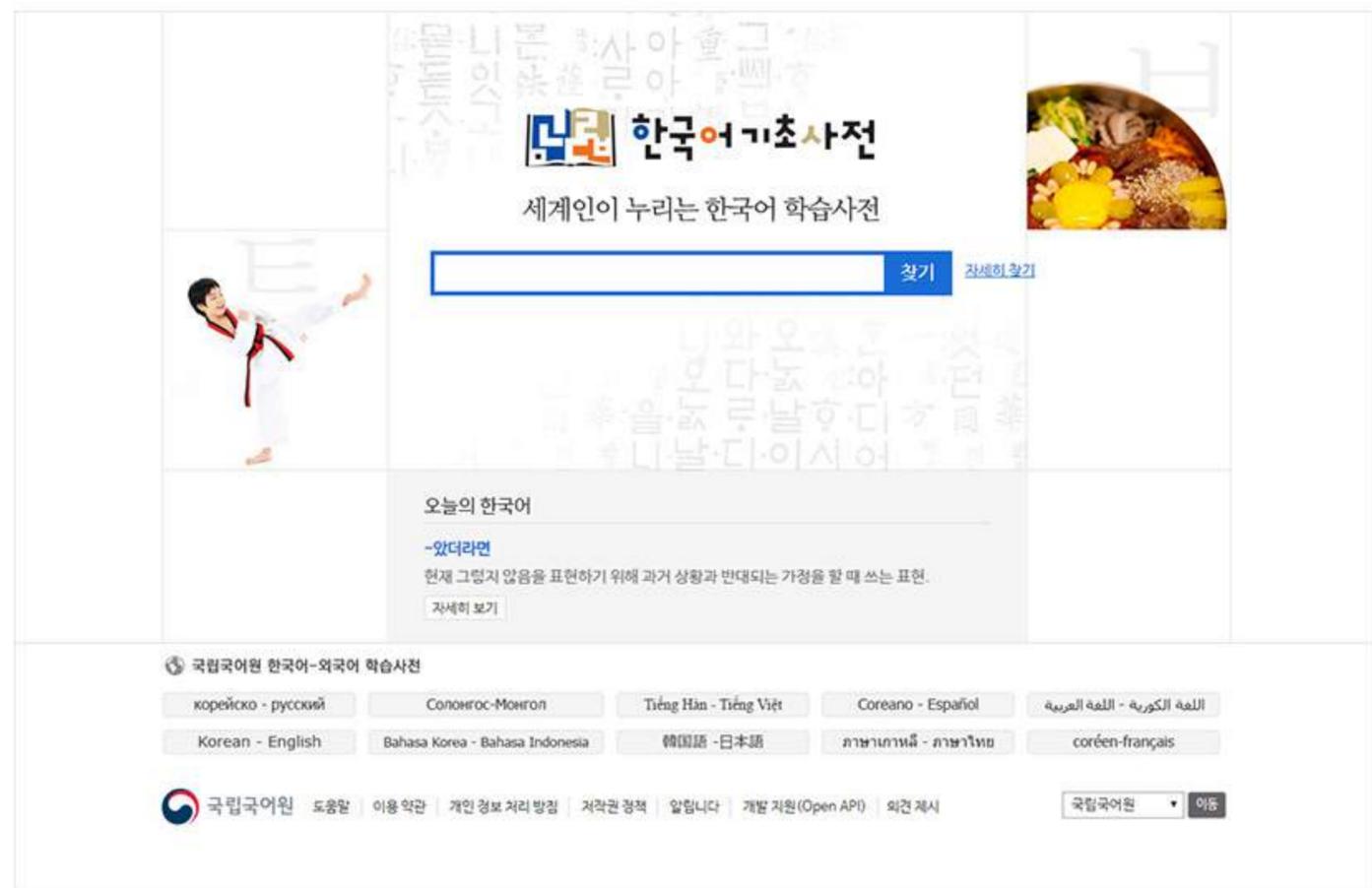
한국어기초사전이나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할 것 같고…….
아!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럼, 2016년 10월에 개통한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알아보까요?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5만여 단어가 실려 있는 한국어 학습용 웹 사전이에요.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여 뜻풀이를 하고 언어권별 사용 환경에 맞추어 만들어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예문과 문법, 표현을 제시하지요. 게다가 어휘별로 삽화, 사진, 동영상, 발음 등 다중 매체 정보와 관련어 정보를 연결하는 등 한국의 언어, 문화와 관련된 교육 정보를 최대한 모은 사전 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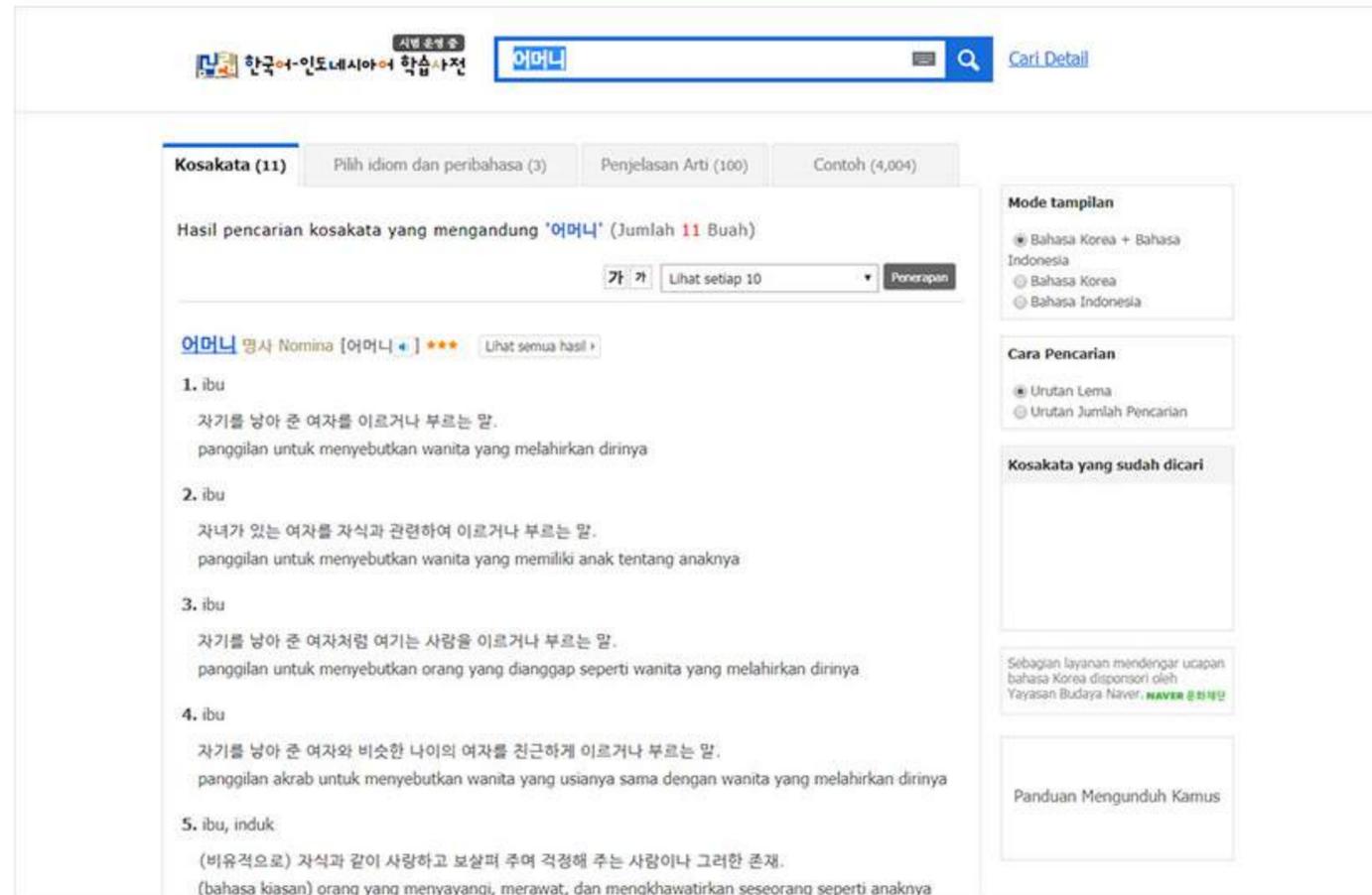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을풀이를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로 번역한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입니다. 사전 첫 화면의 '오늘의 한국어' 아래에 열 가지 외국어 사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 열 가지 외국어 사전 중 아랍어를 누르면, 제시된 것처럼 '한국어-아랍어 사전'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림은 인도네시아어 'ibu(어머니)'와 한국어 '어머니'가 함께 나오도록 구현한 것이지요. 이처럼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제시하게 할 수도, '인도네시아어'만 혹은 '한국어'만 제시하게 할 수도 있는 단추가 화면 오른쪽 네모 안에 보이죠? 국어원에서는 이 열 가지 사전 외에도 다른 외국어 사전을 꾸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수어사전'도 있어요.

이 사전은 농인과 청인이 한국수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한국수어 웹 사전과 이동통신 앱 사전 등을 통합하여 새롭게 정비한 사전이에요. 이 사전은 컴퓨터와 다양한 이동통신 환경에서 제공되고, 다양한 조건을 조합해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메뉴 이름에 마우스 클릭을 두면 수어 설명 영상이 나오므로 농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사전에서는 한국수어 전문용어(교통, 법률 등 10개 분야)와 문화 정보(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문화 전시물 해설)를 제공합니다.

이용하려면 국어원 누리집 첫 화면 '사전' 항목의 '한국수어사전'을 누르거나 누리망 주소창에 'http://sldict.korea.go.kr'을 입력하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메뉴에서 분류별로 수어 단어를 검색하거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주황색 돋보기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수어 정보(수어 동영상, 수형 사진, 수형 설명, 원어 정보, 동형어, 반형어 등)와 한국어 정보(표제어, 품사, 뜻풀이, 용례)가 함께 제공됩니다.

한국수어사전

한국어로 찾기 수형으로 찾기

일상생활 수어
전문용어 수어
문화정보 수어
자료실

공지사항 2019년 한국수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모의 시행 계획 공고

수어, 또 하나의 언어
보이는 언어, 수어로 통하는 세상!

오늘의 수어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카라과

즐거찾기
회원
매뉴얼/수어
내기 본 수어
많이 본 수어
한국수어교원

한국수어사전

한국어로 찾기 수형으로 찾기

수어 검색
의견 보내기
도움말

손 모양
손 위치
한 손/두 손
같은 모양/다른 모양



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사전은 다 소개했어요.

국어원에서 편찬해서 누리망으로 제공하는 사전이 참 많네요.
'국어원'은 사람들이 우리말과 글을 쓸 때에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누리집 어디에서 그 법을 볼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렇까요? 그 법을 **'어문규범'**이라고 해요.

'어문 규범'은 우리가 국어로 언어생활을 할 때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입니다. 어문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는 '띄어쓰기'가 포함되고 부록으로 '문장 부호' 규정이 있지요. 표준어 규정은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 표준 발음법'으로 나뉘고요.

The screenshot shows the '한국어 어문 규범' (Korean Language Grammar)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어문 규정', '항별 연혁', '용례 찾기', and '자료실'.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four main categories, each with a representative icon and a list of sub-topics:

- 한글 맞춤법** (Korean Spelling):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문장 부호).
- 표준어 규정** (Standard Language Regulation):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2부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 (Foreign Language Transcription):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Romanization of Korean):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At the bottom, there are sections for '용례 찾기' (Example Search) and '공지 사항' (Notice). The '용례 찾기' section has a search bar and a '용례 찾기' button. The '공지 사항' section has a '공지 사항' link and a '한국어 어문 규범 사이트 안내' link.

이들 규범은 낱낱의 규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려면 첫 번째 화면 가운데 하늘색의 '어문 규범' 칸에서 '어문 규정 보 기'를 누르고 화면이 바뀌면 위에 나열된 항목 중 '어문 규정'을 활성화하여 알고 싶은 어문 규범을 고르면 돼요.

한국어 어문 규범

어문 규정 항별 연혁 용례 찾기 자료실

한글 맞춤법 [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

내려받기 인쇄하기 전체 보기

본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자음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5장 띄어쓰기
-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

- 문장 부호
- 1. 마침표(.)
- 2. 물음표(?)
- 3. 느낌표(!)
- 4. 쉼표(,)
- 5. 가운뎃점(-)
- 6. 쌍점(:)
- 7. 빗금(/)
- 8. 큰따옴표(" ")
- 9. 작은따옴표('')
- 10. 소괄호(())
- 11. 중괄호({ })
- 12. 대괄호([])
- 13. 겹낫표(『 』)와 겹화살표(↔)
- 14. 줄낫표(⌋)와 줄화살표(↵)
- 15. 줄표(—)
- 16. 물임표(⋈)
- 17. 물결표(~)
- 18. 드래넛표(ˆ)와 밑줄(⏟)
- 19. 숨김표(O, X)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결의 첫소리를 원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박세	어깨	오빠	오븐	아까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긋나다	핵심하다	가깝
거꾸로	부끄	어찌	이따금	

2.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상당하다	간백	실각	불안
말뭉	유물	풍광	엄청하다

다만, 'ㄴ, ㄷ'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박수	각부기	막지	색시
박학(~박학)	반식	갑자기	몹시

해설

이 표항에서 '한 단어'란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어서하고 있는 단어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과 모두 하나의 형태소 내부이다. 따라서 복합어인 '불안(불안), 말뭉(말뭉), 갑자기(갑자기), 갑학(갑학)'과 같은 표기는 이 표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서의 음절을 나타내는 형태소 '소박'은 '소'의 음절로 적을 이유가 없다. 유사하면 '순'과 '학'의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깨	오빠	색시	토끼	거꾸로	기쁘다	아까다
----	----	----	----	-----	-----	-----

예컨대 '꽃이 피었다'에서 '꽃이'의 표준 발음을 알려면, '어문 규정 보기'의 '표준어 규정' 목차 '제2부 표준 발음법 13항'을 보면 돼요. 그러면 '꽃이'를 [꼬치]라고 발음한다는 것과 왜 그리 발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문 규범 보기에서는 항마다 '해설'을 두어,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어 어문 규범

어문 규정 항별 연혁 용례 찾기 자료실

표준어 규정 [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2017. 3. 28.)

내려받기 인쇄하기 전체 보기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제1장 총칙
-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제2부 표준 발음법

- 제1장 총칙
- 제2장 자음과 모음
- 제3장 음의 길이
- 제4장 받침의 발음
- 제5장 음의 융화
- 제6장 경음화
- 제7장 음의 첨가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이 표항은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표준어로 규정된 단어들의 실제적인 발음을 따르는 것이며, 이와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기반으로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칙은 결합음의 발음 규정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후자의 결합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오지 않는 한 결합음은 한 자음이 발음되어온다. 그런데 결합음에 따라 발음적으로 발착자음을 정하지 않고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발착자음을 정한다. 가령 'ㄹ'의 경우 음연 어간에 의거하여 'ㄹ[리]고', '읽어온[읽어온]'과 같이 'ㄹ'이 발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ㄹ'이 발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ㄴ'의 경우도 단어가 되지 않거나 'ㄴ'이 발착하고 'ㄴ'이 발착하고 'ㄴ'이 발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감안한 결과이다.

특수 표준 발음을 달리 허용하는 것도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ㄴ, ㄷ' 받침 음절과 이음 모음 모두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이음 모음 'ㄴ'의 어차 발음을 허용한 것 등 현행 표준 발음에서는 볼 수 없는 발음을 표준어로 규정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하나의 단어가 형식 발음과 현실 발음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제 발음에서 보이는 다양한 발음상의 변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어의 모든 실제 발음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준 발음에서는 실제 발음이라고 하여도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다. 즉 전통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면 실제 나타나는 발음이라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을 감안한다는 의미이다. 전통성을 고려한 표준 발음의 예로 두 가지가 볼 수 있다. 하나는 모음의 장단과 단음화다. 현실 발음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정확히 구별되지 않거나 모음의 장단과 단음화 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의 장단과 단음화 현상 또한 기구 구별되어 한어에 의미가 전달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도 모음의 장단과 단음화 현상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을 두었다. 특히 장단의 변종 모음 장음화의 처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외래어를 한글로 적을 때 알아야 하는 철자와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된 것을 찾을 수 있는 ‘용례 찾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외래어 표기 용례 찾기’를 살펴보면, 검색 조건이 ‘전체·한글 표기·원어·관련 표기(이표기)·관련 표기(오표기)·의미·출전’과 ‘일치·포함·시작 문자·끝 문자’로 다양하고요. 또 ‘자세히 찾기’의 +를 누르면 다섯 개까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상세히 넣어 원하는 항목만 찾을 수 있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래어 표기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악세사리’가 과연 옳은 철자일까요? 검색 조건을 ‘전체’나 ‘관련 표기(오표기)’로 두고 검색어 창에다 ‘악세사리’를 넣어보면 ‘액세서리’라는 정확한 표기를 찾아 제시해 주지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꽤 많아요. 확신하지 말고 용례 찾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정확하지 않은 것을 넣어도 옳은 철자를 찾아 주니, ‘용례 찾기’는 참 편리하면서도 똑똑한 도구죠?

‘국어의 로마자 표기 용례 찾기’는요, 아래 그림에서처럼, ‘김치’를 포함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어머니, 세상에! ‘김치’의 로마자 표기인 ‘kimchi, gimchi’와 ‘열무김치 yeolmu-kimchi’ 등 여러 가지 김치와 김치로 만든 음식 이름이 무려 스무 가지나 제시된답니다.

번호	한글 표기	로마자 표기	구분
20	김치	kimchi, gimchi	일반 용어
19	김치전골	kimchi-jeongol	일반 용어
18	김치찌개	kimchi-jjigae	일반 용어
17	두부김치	dubu-kimchi	일반 용어
16	고들빼기김치	godeulppaegi-kimchi	일반 용어
15	고등어김치찜	godeungeo-kimchi-jjim	일반 용어
14	김치만두	kimchi-mandu	일반 용어
13	김치말이	kimchi-mari	일반 용어
12	김치보쌈	kimchi-bossam	일반 용어
11	김치재워쌈밥	kimchi-jeuwo-deocbap	일반 용어

외래어 표기 용례 찾기는 외래어를 수시로 쓰는 우리에게는 매우 유용하고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 용례 찾기는 외국인이 한국 음식 이름을 발음해야 하는 식당이나 외국인을 위한 안내판을 만드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곳입니다.

사전과 어문 규범 외에도 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언어 개선, 국어문화학교, 국어 상담실, 청소년·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것 등등, 소개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것들은 다음 호에서 안내할게요.

그럼, 다시 뵈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글: 김주미(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사)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 > 궁금한우리말 > 우리말, 그리고 사람

가수 우주왕복선사이드미러가 부르는 <새로운 여름>에는 “친구 아이가? 난 네 친구 아이다. 각마, 어쩔래요?”라는 부산 사투리가 불쑥 튀어나온다. 이 노래는 친구로 지내고 있는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고백하는 주인공의 답답한 마음이 듣는 이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데, 아마도 맛깔스러운 사투리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톱톱 튀는 생명력을 가진 사투리 역시 소중한 우리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5년간 지역어 조사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실이 오는 12월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가칭)으로 공개된다. 아름다운 지역어를 보존하고 알리는 이 사업의 공개를 앞두고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위진 연구관을 만나 봤다.



방언과 지역어, 그리고 사투리

지역의 말을 가리킬 때 ‘방언’, ‘지역어’, ‘사투리’라고들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방언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방언이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뜻합니다. 지역에 따라 분화된 말은 지역 방언 곧 지역어라고 하고,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은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방언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의 방언은 사투리와 같은 말입니다.

부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와 강원에서는 ‘부추(분추)’라고 하는데, 충남에서는 ‘줄’, 전라에서는 ‘솔’, 충북과 경북에서는 ‘정구지’, 경남 서부에서는 ‘소풀(소불)’, 제주에서는 전혀 다른 어휘인 ‘세우리’라고 합니다. 또한 함경에서는 ‘염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추’는 지역별로 여러 방언형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역 이름을 붙여 ‘줄’을 충남 방언, ‘솔’을 전라 방언, ‘세우리’를 제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투리는 표준어 ‘부추’에 대응되는 모든 지역 방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분추, 줄, 솔, 정구지, 소풀(소불), 세우리’가 표준어 ‘부추’의 사투리입니다.”



15년 동안의 꾸준한 연구와 축적된 결과



국립국어원에서 오랫동안 지역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어 조사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어 조사 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어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장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 내용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 제1단계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역어의 구술 자료뿐만 아니라 어휘·음운·문법에 대한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 9개도의 한 지점씩을 선택하여 지점당 3,345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10년 동안 국내 61지점을 조사하여, 약 20만 항목의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역어 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어 보완 조사로 기획되어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어 지도란 특정 어휘의 방언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에 옮긴 것을 말하는데요, 지역어 지도를 작성하려면 최소 군 단위의 방언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현행 162개 시·군 중에서 1단계에서 조사한 61개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111개 시·군을 조사하였고, 올해에도 20개 시·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조사 시·군마다 어휘 약 1,200항목을 조사하여, 현재까지 약 66,000항목의 조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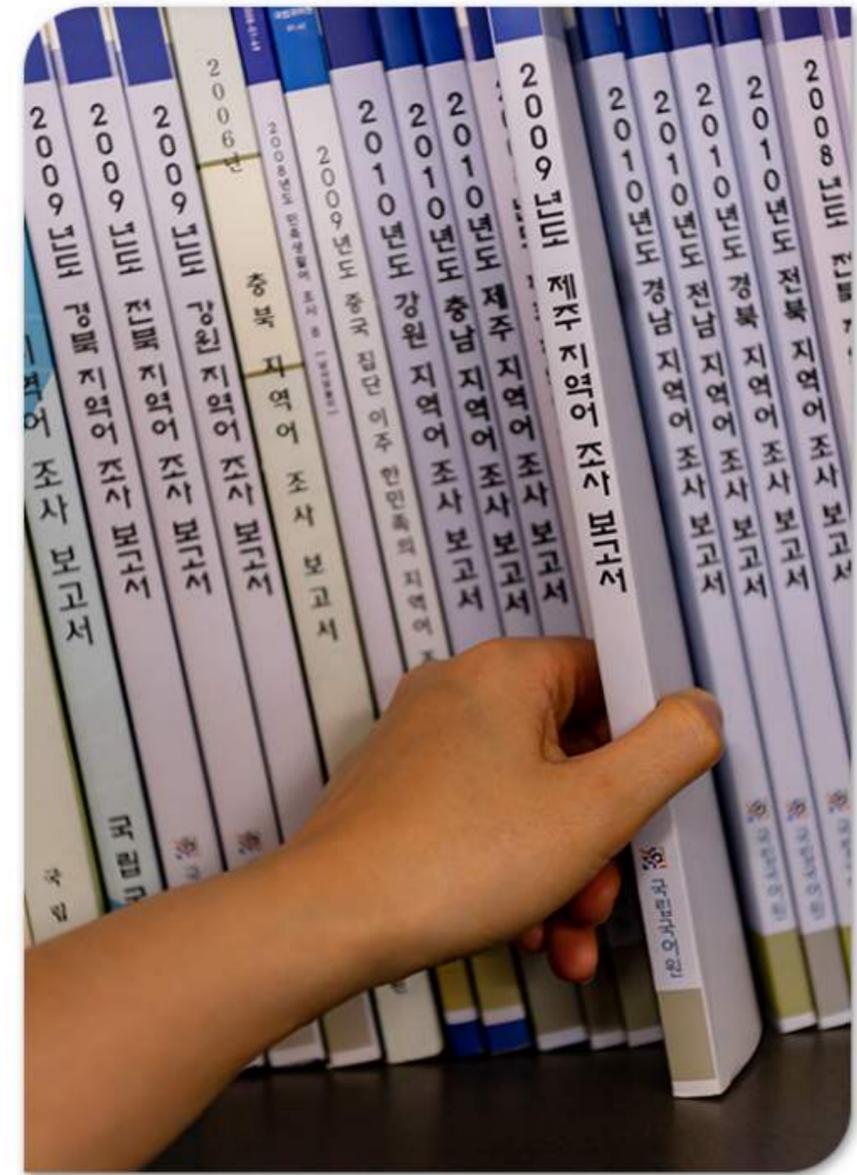
지역어 조사 결과물이 엄청난 수치네요. 그럼 일반 국민들도 지역어 조사 결과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나요? 아마도 이 질문이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현재 진행 단계, 언제 공개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가칭)’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이 국립국어원에서 축적한 지역어 조사 결과를 검색하여 활용하고자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을 때나 지역어 관련 자료를 찾고 싶을 때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어 찾기, 지역어 지도, 구술발화, 문학 작품 속의 지역어, 지역 언어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어 찾기는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조사한 지역어 조사 결과 약 20만 건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어 지도는 방언의 지역적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지도 약 100장과 해설을 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술발화는 지역민이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음성을 채록한 것으로 약 100시간 분량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문학 작품 속의 지역어는 말 그대로 문학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는 지역어를 예문과 함께 찾아보는 내용이고, 지역 언어문화는 우리 주변 일상에서 사용되는 생활어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의 체재는 갖추었고, 올해는 시스템에 탑재할 정보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말에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이라는 조사 기간을 거쳐 모아 온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어들을 곧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만날 수 있다. 역사와 문화를 담고 우리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지역어들을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며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의 정수를 느껴보길 바란다.





창고가 상전벽해하다, 한국근대문학관

‘인천 개항 누리길’은 ‘인천 속 작은 일본’으로 불린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외국풍 근대 건축물이 남아 있어 개항 시대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일본우선주식회사, 제물포구락부 등 역사를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인천의 아트플랫폼과 일본식 적산 가옥이 있는 거리에 카페, 음식점, 흑백 사진관 등이 생기면서 2019년식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 그 거리의 골목길에 한국근대문학관이 있다.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한국근대문학관은 원래 개항장 창고 건물이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힘을 합해 개항장 창고를 수리해 지금의 문학관으로 새로이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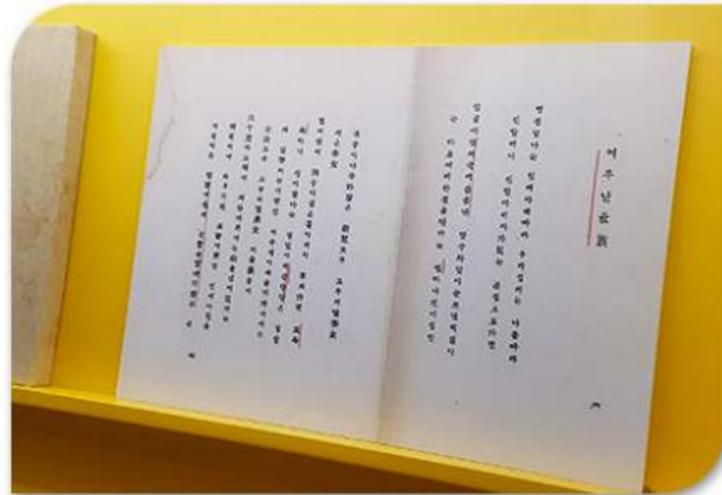
건물 유리창에 적혀 있는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출입구로 들어가는 관람객을 반긴다.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상설 전시실이, 왼쪽에 기획전시실이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근대 계몽기(1894~1910)에서 해방기(1945~1948)까지 한국 근대 문학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일제에 탄압받던 근대 문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기획전시실 ‘한눈에 보는 한국근대문학사’를 관람하면 된다. 두 전시실 모두 한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아간 문인들의 삶과 문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별처럼 빛나는 작가들의 울림이 있는 곳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최남선, 이광수, 김소월, 한용운, 현진건, 염상섭, 정지용, 백석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는 초판본과 복각본, 당시의 시대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 문학의 한 쪽을 장식하는 문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작가는 백석이었다. 기획전 초입에 들어서면 「멧새소리」가 전시장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다. 상설전시장에서도 「나와 나 타샤와 흰 당나귀」, 「여우난골족(여우난골族)」, 「고독」 등 그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백석은 '시인들이 사랑한 북방 사투리의 시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순정한 이미지와 풍부한 어휘로 서정시를 썼다.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평안도 방언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향토적 세계를 탁월하게 그렸다. 백석 시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 풍속이 그려져 있는데, 그 시풍이 다른 시인들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기억, 여행하며 접한 풍물 등을 주요 소재로 삼고 방언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매우 개성 있는 시 세계를 선보였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백석이 자비를 들여 100부만 출간했다는 시집 『사슴』을 만나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슴』은 윤동주가 구하려다 끝내 못 구해 필사했다는 시집으로도 유명하다. 『사슴』 외에도 이광수의 『무정』,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등 많은 초판본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의 마음을 흘렸던 도시, 인천

인천은 1883년에 개항된 항구 도시였다. 외래의 근대 문화가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곳이자, 외래 문화와 만나는 첫 점점 시대였으며,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였다. 문학 작품 속 인천은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 당시 근대 문학 작가들이 바라본 인천의 모습을 작품으로 엮볼 수 있게 전시해 놓았다. 당시 인천은 매력 있는 근대 도시,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서구 문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 개항장 곳곳에 들어서 있는 외국풍의 건물들은 문인들의 이런 정서를 더욱 북돋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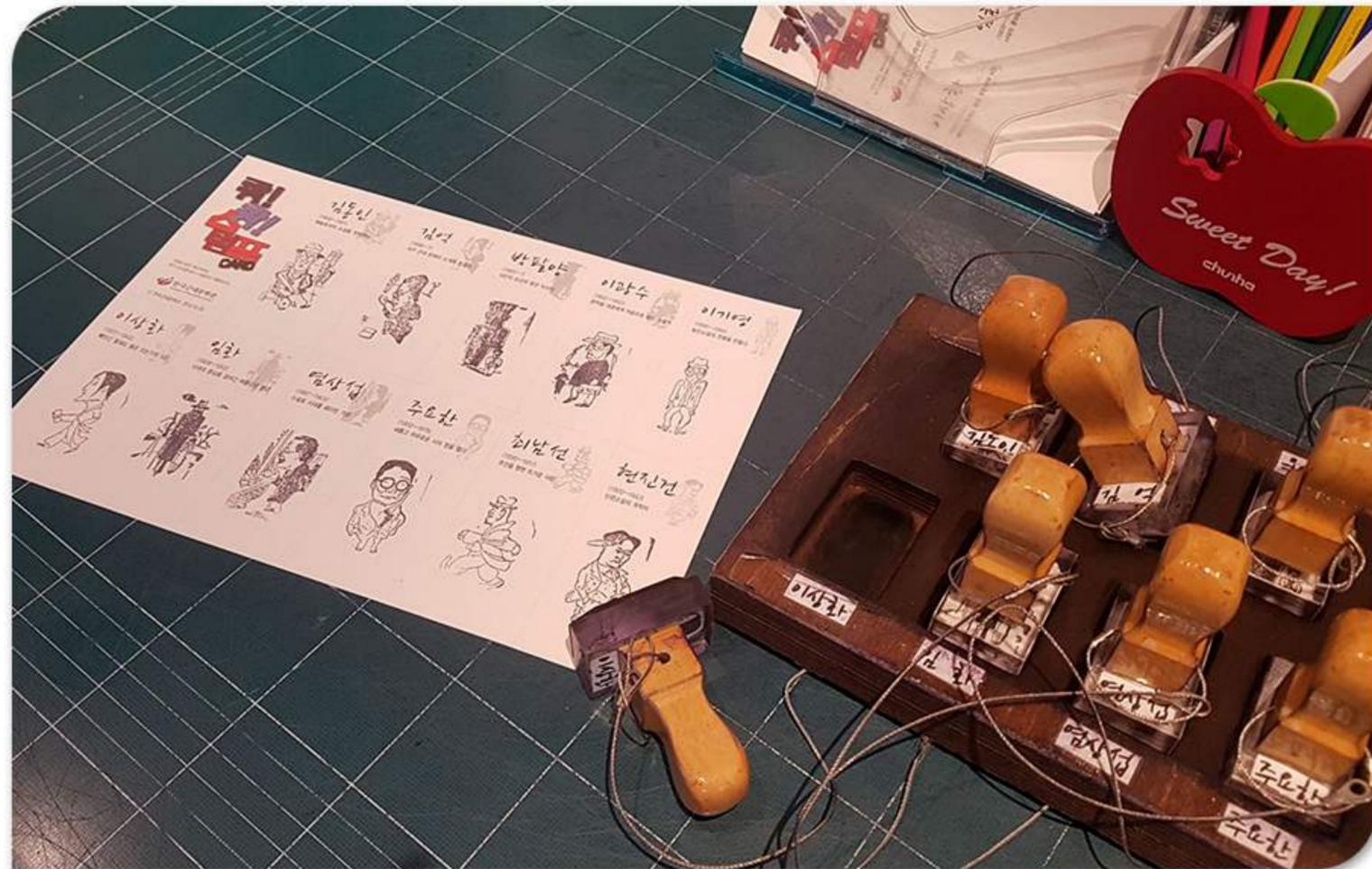
또 인천은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최초의 신소설 『혈의누』속 주인공인 옥련이가 배를 타고 일본을 향해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인천항이다.

인천 팔미도 넓고 넓은 물결은 호호망
-이인직, 『혈의누』

또 다른 작품에서는 인천을 근대적 여가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1917년 월미도와 내륙을 잇는 방파제가 완공되고, 1923년 월미도유원회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다. 일제 강점기 사람들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기차를 타고 와 월미도 유원지나 자유공원에서 온천과 꽃놀이, 휴식 등을 하고 돌아갔다. 근대 문학 속에서 경성의 학생들이 소풍을 오는 곳이거나, 인천은 여름철 피서지이자 부자들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그려졌다.

인천역에 내리니까 커닝햄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다.
-염상섭, 『이심』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외국으로 떠나듯이 근대 문인들도 인천 항구를 바라보며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을 꿈꿨을 것이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한국근대문학관을 나서는데 몇 시간 전과 다르게 인천 개항 누리길이 아주 특별해 보였다. 근대 작가들에게 감미롭고 감상적인 공간이자 신식 문물로 가득 찼던 이 도시를 70년이 흐른 지금은 과거를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면 작가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까.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하며 특별해진 거리를 걷는데 한국근대문학관 옆에 있는 서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름이 '인천서점'이다. 인천 작가가 쓴 작품, 인천 이야기를 다룬 책을 주로 다루며 카페도 겸하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요새 도시인 크사르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지금은 흔한 게 커피지만 근대에는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마셨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갑자기 한국근대문학관에서 만난 작가들과 커피 한잔을 나누며 인천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들려주고 싶었다. 한때 그들이 낭만을 느꼈던 도시, 인천에 대해 분명 궁금해할 테니 아마도 시간을 넉넉히 내어 주지 않을까.

글·사진: 고승희
참고: 한국근대문학관 안내 책자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그 여름, 제철 먹거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올여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맛있는 제철 곡식과 과일, 채소를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그 맛있는 이름들을 방언으로 한번 불러 볼까요?





☑ 분추

'상추'의 강원도 방언

돼지고기는 상추랑 같이 먹으면 맛이 좋다.



☑ 옥소시

'옥수수'의 전라남도 방언

이 옥수수 맛이 고소해요.



☑ **참외봉텡이**

'작고 못생긴 참외'의 충청도 방언

다 팔고 나머지는 작고 못생긴 참외밖에 없어요.

방언 이름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어떤 먹거리일지 짐작은 가지 않나요?
자꾸 부르다 보니 어느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네요.
올여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영양가 있는 방언들, 자주 떠올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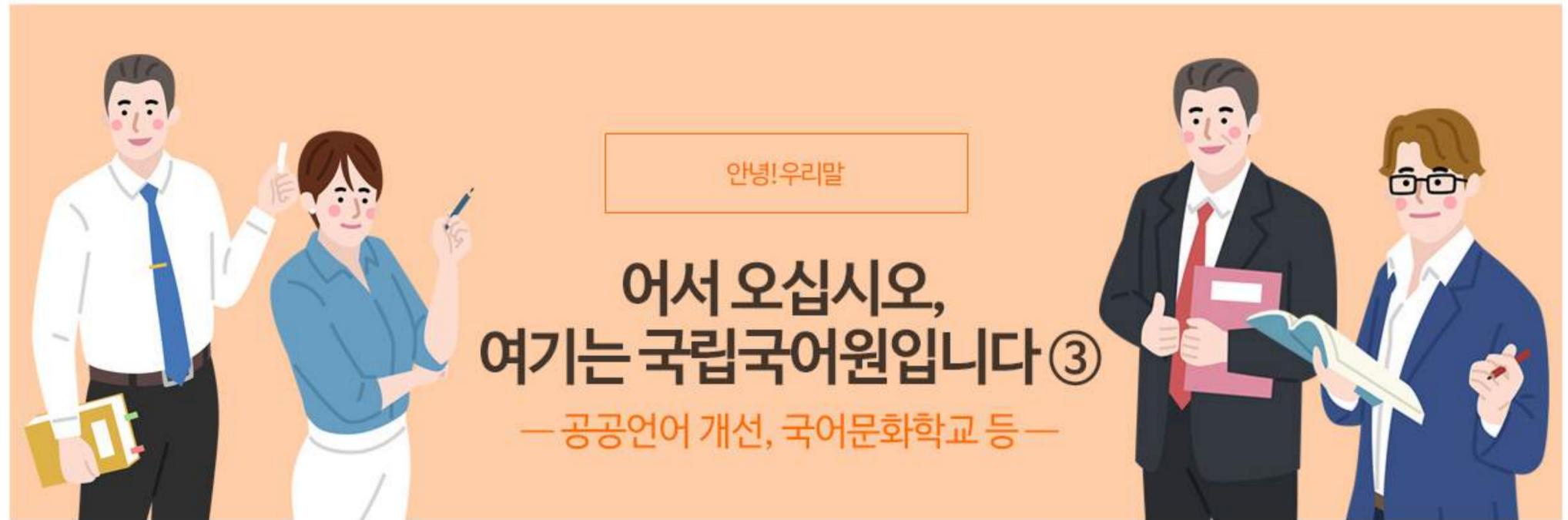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6월 25일



🏠 ▶ 궁금한 우리말 ▶ 안녕! 우리말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 개선'이라고 쓰인 곳이 있던데, '공공언어'가 무언지 모르겠어요. '공공!' 왠지 가볍게 생각되지 않는데…….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그럼, 오늘은 공공언어와 관련한 내용과 국어 교육을 하는 '국어문화학교', '우리말 꿈터' 등을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커피전문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무언지는 아시겠어요?

음! '커피전문가'는 '바리스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되는데요.



역시! 맞습니다. 커피전문가는 바리스타를 다듬은 말이지요. '커피전문가'는 국민과 국어원의 합작품이지요. 일단 '공공언어 개선'으로 출발!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Commission. The main navigation menu on the left includes: 지식 (Knowledge), 개선 (Improvement), 교육 (Education), 수어/점자 (Sign Language/Braille), 자료 (Resources), 참여 (Participation), 알림 (Notice), and 소개 (Introduc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사전 (Dictionary) with links for '우리말성' and '한국어기초사전'; 국어상담 (Korean Language Consultation) with '온라인상담' and phone number '1599-9979'; 어문규범 (Language Norms) with '어문 규정 보기' and '용례 찾기'; 공공언어개선 (Public Language Improvement) with '다듬은 말', '표준 전문용어', '공공언어 국민 제보', and '정책용어 사전 상담'; 교육 (Education) with '국어문화학교' and '한국어교원 자격'; and 국립국어원 청소년 공부방 이용 안내 (National Korean Language Commission Youth Study Room Usage Guide). At the bottom, there are sections for 공지사항 (Notice), 보도자료 (Press Release), and 학회/행사/기타 (Association/Event/Other).

먼저, 첫 화면 오른쪽 두 번째 보라색 칸의 '공공언어 개선'은 우리말을 더 우리말답게 쓰거나 바르게 써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다듬은 말', '표준 전문용어', '공공언어 국민 제보', '정책용어 사전 상담', '공공언어 감수', '공공용어 번역'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The screenshot shows the '다듬은 말' (Polished Words) section of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Commission website. The page features a search bar at the top, a navigation menu, and a list of words.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search bar with a dropdown menu, a search button, and a list of words with their original and polished forms.

번호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17902	헤스투 힐링	fasthealing	차투리힐식

그중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말 다듬기’부터 살펴볼까요? 국어원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자 낯선 외래어와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있는데요, 공공언어 개선 칸의 ‘다듬은 말’을 누르면 그동안 다듬은 말을 찾을 수 있다는 안내 아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바로 가기’가 있고, 그곳을 누르면 새 창이 뜹니다. 새 창의 ‘다듬기-우리말 다듬기’ 아래에서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을 제안하는 ‘다듬고 싶은 말’을, 다듬을 말을 제안할 수 있는 ‘어떻게 바꿀까요?’를, 이렇게 해서 다듬어진 말을 제시하는 ‘이렇게 바꿨어요!’를 볼 수 있어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공공용어 번역 우리말 다듬기 자료실 알림

● **우리말 다듬기** 다듬은 말 목록 내려받기 다듬은 말 찾기

다듬기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낯선 외래어와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들은 '다듬고 싶은 말'에서, 공모전이 시작되었을 때는 다듬은 말을 '어떻게 바꿀까요?'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다듬어진 말들은 '이렇게 바꿨어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듬고 싶은 말

알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말, 우리 모두 함께 가꾸어 갑시다.

어떻게 바꿀까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다듬은 우리말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니다.

● **쉽고 편한 우리말**

우리말을 찾아서

상품

이베시비(MYCD) 공식 인스타그램

쉽고 편한 우리말을 찾아서

필수품

필수품

쉽고 편한 우리말을 찾아서

가맹점

가맹점

다듬은 말을 제안하고 싶다면 다듬은 말을 공모할 때 국어원 누리집 초기 화면 공공언어 개선 칸의 '다듬은 말'을 누르면 뜨는 화면 왼쪽에 '우리말 다듬기 공모'로 곧장 갈 수 있는 '바로 가기' 표시를 이용하면 돼요. 그곳에서 왼쪽에 있는 '어떻게 바꿀까요?' 칸을 누르면 공모 중인 다섯 항목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항목을 누르면 다듬은 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다듬은 말 중에서 '말다듬기 위원회'에서는 가장 적절한 말을 다듬은 말로 선정합니다. 제안한 안이 다듬은 말로 채택되면, 그 안을 첫 번째 제안한 사람은 10만 원, 두 번째 제안한 사람은 5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다듬은 말 목록 내려받기

다듬은 말 찾기

'다듬은 말'(순화 대상어)을 대신할,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확정한 다듬은 말(순화어)을 공모 기간에 제안하신 분께는 경해진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 한 분이 하나의 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로 세 개까지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확정된 다듬은 말을 제안하신 분이 안 계시면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각 분기별 공모에서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한 분에게 1년에 4회까지만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 한 분기에 여러 개의 순화어 공모에 당첨되었다도 한 개의 순화어에만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예: 2017. 4. 24. ~ 2017. 5. 15. 스모킹 건, 오픈 프라이머리 순화어 공모 진행 스모킹 건-홍길동: 결정적 증거, 김영희: 중요한 단서 → 순화어 '결정적 증거'를 제안한 홍길동 당첨 오픈 프라이머리-홍길동: 국민 경선(제), 김영희: 국민 경선(제) → 순화어 '국민 경선(제)'를 제안한 홍길동, 김영희 중 중복 당첨된 이력이 없는 김영희 당첨)

•2017년 2분기부터는 다듬은 말(순화어) 당첨자 분들께 문화 상품권을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669-965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요 조회 수 7080 / 2019. 4. 15. ~ 2019. 5. 17.

3 1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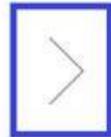
'플랜테리어(planterior)'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 주세요!

(보기 1) 통계청의 한 설문에 따르면 플랜테리어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공기 정화 및 인테리어, 두 번째는 반려 식물이 제공하는 심리적인 안정과 집안 분위기의 긍정적 변화라고 응답했다.

(보기 2) 유통업계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 양식과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련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기 정화, 심신 안정 효과까지 기대되는 플랜테리어가 인기가.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이용해 자연 친화적인 실내 공간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플랜테리어를 대신할 우리말로는 어떤 말이 좋을까요? 더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우리말을 제안해 주세요.



▲ 제안어 공모 기간: 2019년 4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7일까지

▲ 플랜테리어의 최종 다듬은 말 발표일: 2019년 7월(예정)

▲ 다음번 다듬은 말 발표일: 2019년 7월(예정)

*주의: 제안어는 반드시 '제안어 칸'에 입력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우와! '일거양득,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펍 먹고 알 먹고'가 여기 있었네요!



The screenshot shows the '표준 전문용어' (Standard Professional Terms) page.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with '개선' (Improvement) selected, and a list of categories including '다듬은 말', '표준 전문용어', '우리말 다듬기 공모', '공공언어 국민 제보', '정책용어 사전 상담', '공공언어 감수 요청', and '공공 용어 번역'.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arch bar with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it indicates '현재 523건' (Currently 523 items) and shows a table of terms.

번호	표준화 대상어	원어	표준화 용어
523	물수선	물水線	물수선, 잠김선
522	휴테크	휴Tech(영)	여가활동 기술, 여가활동 방법



‘표준 전문용어’에서는 국민의 관심과 쓰임이 많은 전문용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시한 전문용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들어가는 방법은 공공언어 개선의 ‘다듬은 말’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의 왼쪽 두 번째 항목 ‘표준 전문용어’를 누르면 그간에 고시된 전문용어 목록과 내용, 고시한 곳 등이 상세히 안내되지요.

‘황천’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황천’ 하면, ‘황천에 갔다, 황천객이 되었다’처럼 저승을 뜻하는 황천(黃泉)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황천(荒天)도 있어요. “황천 향해 때 어떻게 운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처럼 쓰이는 이 용어는 해양 수산 분야의 전문용어이지요. 이를 2017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거친 바다’와 ‘거친 날씨’로 표준화하여 고시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담긴 곳이 표준 전문용어 항목이랍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Center. The main banner reads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Our language is our future). The navigation menu on the left includes '지식', '개선', '교육', '수어/점자', '자료', '참여', '알림', and '소개'.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사전' (Dictionary) with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and '한국수어사전'; '국어상담' (Korean Language Consultation) with '온라인상담' and phone number '1599-9979'; '어문규범' (Language Norms) with '어문 규정 보기' and '용례 찾기'; '공공언어개선' (Public Language Improvement) with '다듬은 말', '표준 전문용어', '공공언어 국민 제보', and '정책용어 사전 상담' (highlighted with a red box); '교육' (Education) with '국어문학학교' and '한국어교원 자격'; '국립국어원 청소년 공부방 이용 안내'; and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고급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 상의 안내 - 알립니다'. At the bottom, there are sections for '공지사항' (Notice), '보도자료' (Press Release), '입장공고' (Statement), and '학회/행사/기타' (Association/Event/Other).

‘정책용어 사전 상담’ 난도 있는데요, 이곳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을 발효하기 전에 기관 자체안의 적절성을 검토 요청하고 상담하는 자리입니다. 검토가 요청되면, 국어원에서는 기관 자체안이 이해하기가 쉬운지, 개념이 잘 전달되는지, 간결한지, 조어법이나 규범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대안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번 도입되면 바꾸기 어려운 정책용어, 발표하기 전에 쉬운 용어로 다듬어서 정책의 효과도 높이고 국민과도 쉽게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공공언어 개선’에서 ‘정책용어 사전 상담’으로 바로 가거나 다듬은 말 왼쪽에 나열된 항목 중 ‘정책용어 사전 상담’을 눌러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언어 통합 지원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공공용어 번역
우리말 다듬기
자료실
알립니다

● 공공언어 감수 요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국립국어원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필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 지원 요청자 확인 및 지원 결과 전달	이름, 소속 기관,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3년(※본인 삭제 요청시 즉시파기)

- 선택 항목 및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범죄 및 의로기록 등)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 지원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정보 입력

이름	<input type="text" value="이름을 입력하세요."/>	휴대 전화 본인 인증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value="비밀번호는 작성 글을 수정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password" value="입력하신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 6~12자리의 영문과 숫자만 조합하여 6~12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는 개인 정보를 최소로만 수집하므로 작성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누리집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직접 작성한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필요하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언어 감수’도 해 드립니다.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지요. 공공언어가 쉽고 발랐을 때 국민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국민은 자신의 권리도 찾고 의무도 다할 수 있으므로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감수를 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공언어 감수 요청’ 게시판에서 대국민 공문서에 쓴 문장들을 감수해 달라고 국어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언어 감수 현황’에서는 감수 요청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요. 감수를 요청하시려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수 요청 창을 띄우고 안내하는 문구에 따라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수 분량 및 횟수와 감수 대상 문서가 제한되므로 참고하여 요청하시면 좋겠죠? 감수가 완료되기를 바라는 날짜를 써서 요청하시면 국어원에서 이를 참고하여 감수해요.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Commission (국립국어원). The main banner reads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Our language is our future). The navigation menu on the left includes '지식', '개선', '교육', '수어/점자', '자료', '참여', '알림', and '소개'.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사전' (Dictionary), '국어상담' (Korean Language Consultation), '어문규범' (Language Norms), '공공언어개선' (Public Language Improvement), '교육' (Education), and '국립국어원 청소년 공부방 이용 안내' (National Korean Language Commission Youth Study Room Usage Guide). The '공공언어개선' section has a red box around the '공공언어 국민 제보' link, with a mouse cursor pointing to it. Below the main content, there are sections for '공지 사항' (Notice), '보도 자료' (Press Release), '입장 광고' (Notice of Interest), and '학회/행사/기타' (Academy/Event/Other).

공공언어 통합 지원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공공용어 번역 우리말 다듬기 자료실 알립니다

● 공공언어 국민 제보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워서 불편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공언어를 제보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전체 [] 검색 전체 152건 [] 제보하기

번호	제목	공개 여부	글쓴이	분야	구분	쓴 날짜	처리 상태
152	국어시간	공개	민모리	문화/예술	날말	2019. 06. 18.	완료
151	혹이나 다름없는 신조어 사용에 대해서	공개	아들의 아빠	기타	날말	2019. 06. 13.	완료
150	관광 지명의 사전 통제와 관련하여	비공개	한국 길잡이	문화/예술	날말	2019. 06. 12.	완료
149	복수표준어 확대 건의(쓰레받기, 쓰레받이, 감...	공개	인생은미완성	교육	날말	2019. 06. 12.	완료
148	외국어 남용 사례	비공개	진	행정	날말	2019. 06. 11.	완료

그 밖에도 ‘공공언어 국민 제보’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워서 불편했거나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 공공언어를 제보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국립국어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간이지요. 2019년 3월 19일에는 도로 바닥에 쓰인 ‘KISS@RIDE’란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달라는 제보가 있어서 해당 기관에 다듬은 말인 ‘환승 정차 구역’으로 바꿔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실제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용어 번역’도 해 드려요.

국립국어원은 2013년부터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어의 표준화는 공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관련한 표현의 ‘공공성·소통성·규범성’을 준수하여 외국인에게 바르게 알리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물, 인공물과 관련된 지명, 도로명, 공공 관광 안내 표지판 등 관광 관련 공공 분야 용어와 한식명, 문화재명 일부, 한국학과 관련된 문화 분야 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표준 번역안을 ‘공공용어 번역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공공용어 번역안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감수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지원이 필요하시면 ‘공공용어 번역 요청’에서 하시면 된답니다. 이는 국립국어원도 한류 문화를 세계에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올바른 번역안을 보급하고 알리는 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국어원은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군요!



네. 국민이 공공언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공공언어가 쉽고 바르게 쓰여야 하지요. 그렇게 되는 데 국어원이 앞장서고 있음은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보아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국어원에도 학교가 있다면서요? 그 학교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국립국어원에는 ‘국어문화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대학교처럼 독립된 학교는 아니고 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으음!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차근차근히 안내할게요.



국어문화학교를 연 목적은 사람들이 올바른 어문 규범을 알고 우리말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도록 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어요. 요즘 국어 사용 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높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 국어 재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여러가지 교육 과정과 방법으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크게 세 가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 얼핏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는 ‘4대 어문 규범 강좌, 공문서 바로 쓰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국어책임관 길잡이, 표준 언어 예절’ 등 2019년 5월 현재 총 21가지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어문화학교 첫 화면에서 ‘수강 신청’을 누르면 곧바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로 갈 수 있지요. 수강 신청을 하면 한 달간 공부할 수 있고, 완료하면 수료증도 출력할 수 있고, 원하면 교육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복습도 가능해요.

로그인 회원 가입 누리집 지도


국어문화학교
교육안내
교육신청
나의강의실
자료마당
알림마당
국어문화학교 소개

☞ 첫 화면 > 교육 신청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교육 신청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썩!썩! 국어교실 +

우리말 쏙터 +

원내 국어문화학교 +

교사직무연수 +

교육 신청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 수강 신청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읽어 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 처리 및 수료증 발급은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한 **다음 날 오전**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진도율 90% 이상
- 각 자시별 5분 이상 수강

과정 검색 검색

수시과정 기관 맞춤형 기획과정

강좌명	학습 방법	수강 신청 기간	학습 기간	수강 신청
[수시과정] 국어책임관 필장이(N)	온라인	상시	1개월	신청
[수시 과정] 공문서 바로 쓰기(N)	온라인	상시	1개월	신청
[수시 과정] 우리말 다듬기(N)	온라인	상시	1개월	신청
[수시과정] 절차 학습(수학)	온라인	상시	1개월	신청

바로가기
 나의 강의실
 자주하는 질문
 수강 신청
 묻고 답하기
 수강 결과 안내

둘째로, ‘집합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국어전문교육과정’과 ‘특별 과정’으로 꾸려져요. 국어전문교육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과 일반인이 5일 35시간 동안 어문 규범을 비롯해 국어와 공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들 수 있는 과정이고, 특별 과정은 항상 운영되는 것으로, ‘화법, 작문, 독서, 공문서, 수어’ 과정이 있으며, 1일에서 3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에 각각 1회 5일 30시간 동안 열리는 ‘교사 직무 연수’도 있습니다.

‘기획 과정’도 있는데요. 이는 외부 기관 자체의 기획에 따라 강사를 파견하여 정규 과정 형식으로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기억해 두세요.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 요청하면, 1강좌 2시간, 기관당 1년에 최대 3강좌 6시간까지, 국어원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과정입니다. 신청 조건은 30명 이상의 수강생과 강의장, 그리고 국어를 바르게 알려는 마음입니다. 교육은 신청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꾸려집니다. 강의를 듣는 데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 등을 국어원에서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지요.

로그인 회원 가입 누리집 지도

국어문화학교 교육안내 교육신청 나의강의실 자료마당 알림마당 국어문화학교 소개

☛ 첫 화면 > 교육 신청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신청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 쏙쏙! 국어교실 +
- 우리말 꿈터 +
- 원래 국어문화학교 +
- 교사직무연수 +

교육 신청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전국 어디든지 국어 강의를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국어 강의(기본 1강좌 2시간 강의, 최대 3강좌 6시간 강의를 해 드리는 교육 과정입니다.

30명 이상이 모여 2시간 가량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중앙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군 부대 등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문의: 02-2669-9752

신청 바로가기 >

바로가기
나의 강의실
자주 하는 질문
수강 신청
문의 답하기
수강 절차 안내

어른들 말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들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쏙쏙 국어교실’과 ‘우리말 꿈터’가 있어요.

‘쏙쏙 국어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이에요. 전국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국어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그 지역 아동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에 국어원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용 교재인 “쏙쏙! 국어교실”을 펴냈지요.



국어원에는 우리 말과 글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해 보는 청소년 체험 공간인 '우리말 꿈터'가 있어요. 목적은 국어사전, 언어 예절 등 우리말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언어를 매개로 소통, 공감, 배려 등의 인성 역량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것이지요. '도전, 사전 탐험대', '출발! 우리말 여행', '안녕! 우리말', '나도 우리말 지킴이'의 네 가지 주제로 꿈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고 우리말 꿈터 체험 신청은 국어문화학교 안 '교육 신청' 난에서 하면 돼요. 참가비는 없고,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혹시 어법이든 단어도든 국어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국어원에다 질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국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국어원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컴퓨터로, 전화로, 카톡으로 운영하는 국어 상담실이 있습니다.

'온라인 가나다'는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 등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질문을 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까지 답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요.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이 궁금한 것을 물어 왔기에 그간 답한 자료가 많이 쌓였어요. 그 자료를 뽑아 정리해 놓은 곳이 '상담 사례 모음'인데요. 온라인 가나다에 질문하는 글을 쓰기 전에 상담 사례 모음 검색어 창에다 질문할 내용을 넣어 보아 이미 제공한 답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평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번호 '1599-9979(국어친구)'로 연구원에게 묻고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우리말 365'와 친구 맺기를 하면 여느 사람과 카톡을 하듯 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기억해 두어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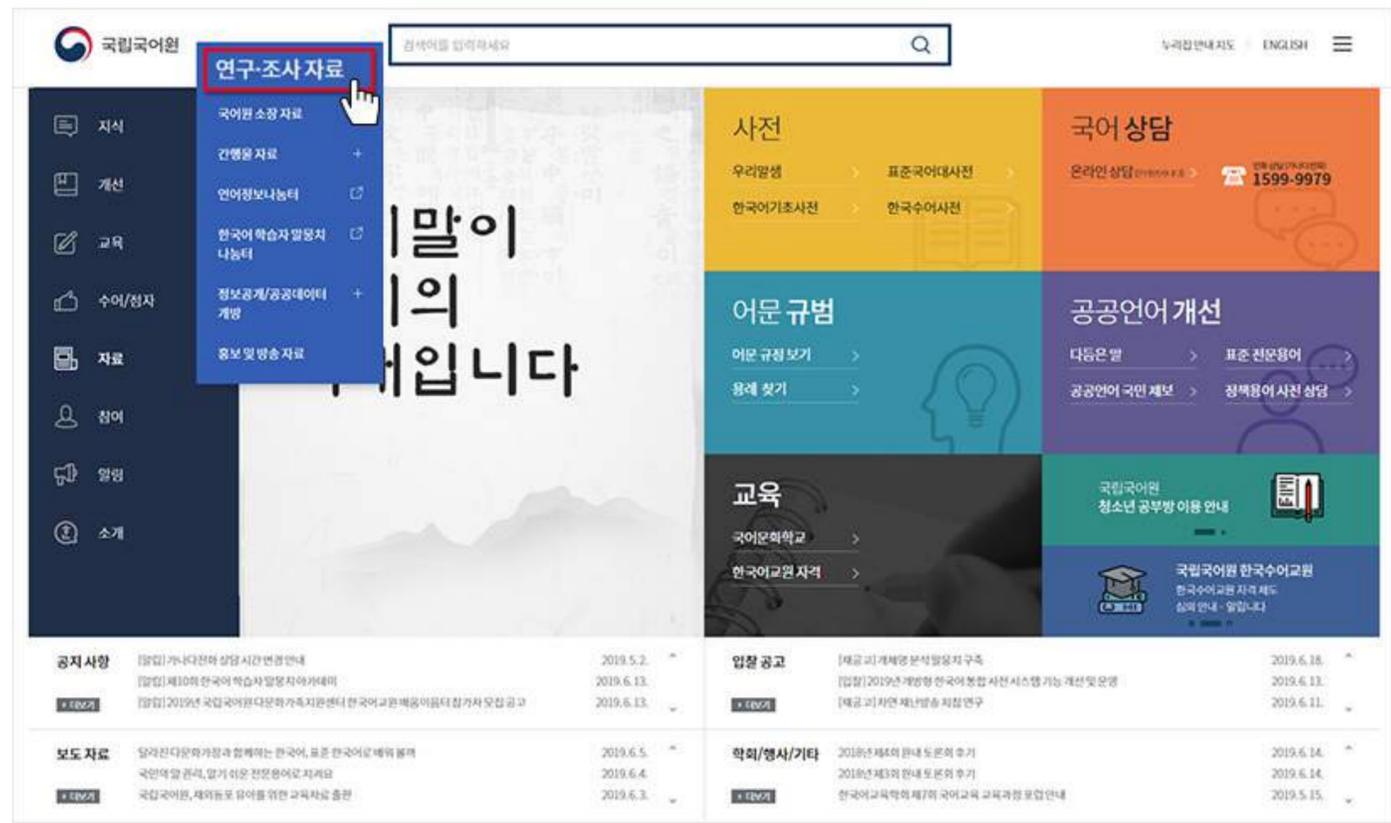


끝으로, 국립국어원에 있는 자료실을 소개하지요.

'자료실'은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자료부터 국어와 관련된 전공 서적 등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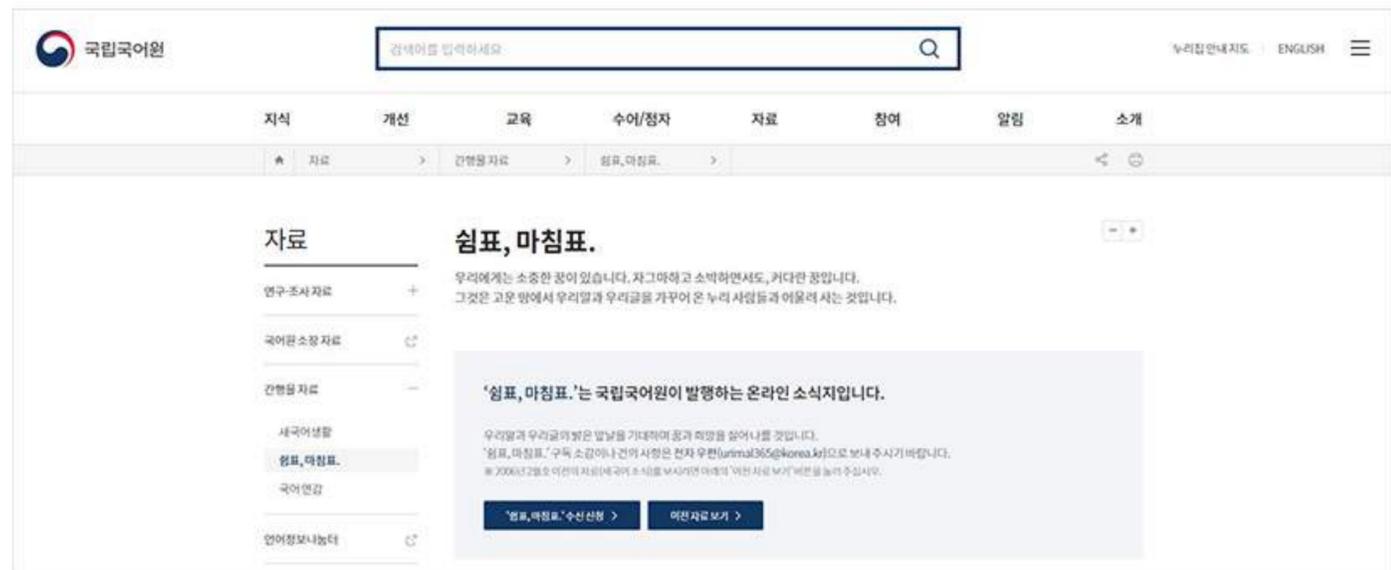
자료실로 가는 방법은 첫 화면 왼쪽의 '자료'를 선택하면 돼요. 그곳에는 '연구·조사 자료', '국어원 소장 자료', '간행물 자료' 등의 항목이 있어요. 그중 연구·조사 자료를 펼치면 '연구보고서'와 '기타 자료'가 보여요. "국어·한국어, 수어, 점자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주제어'나 '출판된 때'로 검색하면 보고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이 가장 최근(2019년6월18일)에 등록된 보고서예요. '기타 자료' 중 2015년 1월부터 쓰이는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이 담긴 자료를 소개할게요. 이 자료를 찾으려면 첫 화면 왼쪽 '자료' 난을 눌러 일단 자료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 난으로 들어가 업무별 검색에 '어문연구과', 주제어 검색에 '문장 부호'를 넣고 찾기 단추를 누르면 "문장부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피디에프 파일의 형태로 있습니다. 이 연두색의 얇은 책자에는 문장 부호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비롯하여 전문(畵文)과 일람표가 실려 있어요. 바뀐 문장 부호를 바르게 알고 쓰려면 이 얇은 책을 읽어 보아야겠죠?



또한 ‘국어원 소장 자료’ 항목을 누르면 “국립국어원 자료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창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 논문검색서비스’ 등으로도 연계가 되어 편리해요.

‘간행물 자료’를 펼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국어원에서 1년에 네 차례 발간하는 연구서 “새국어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 ‘쉽표, 마침표.’가 있지요. 이 온라인 소식지는 2주일에 한 번씩 전해지는데요. ‘궁금한 우리말’, ‘놀라운 우리말’, ‘쉬어 가는 우리말’, ‘갈무리할 우리말’로 구분되고, 각각에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의 이야기가 가득하답니다. 이 소식지를 전자 우편으로 받아 보고 싶으시죠? 신청 방법은 <쉽표, 마침표.> ‘소신 신청’을 눌러서 이름과 전자 우편 주소만 적어 넣고 ‘확인’ 단추만 누르시면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지식을 가만히 앉아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 이외에도 '교육' 항목 안에 있는 '알고 싶은 한글'에는 '한글의 구성, 한글을 만들게 된 배경, 한글날의 역사' 등 한글에 관한 많은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제공되고 있어요. 또 '바른 소리'는 우리말의 어휘와 문장의 억양까지를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곳이에요.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발음하는 입의 앞모양과 옆 모양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그 발음을 익힐 수 있지요. 바른 소리는 영어판과 일어판이 있어요.



이제 안내를 마칠까요.

우아!



사전, 어문 규범, 공공언어 개선, 국어문화학교, 국어 상담실, 청소년 관련 교육 사업, 자료실 운영까지, 국어원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을 향상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구죠. 그런 만큼, 국민이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또 국민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지요. 나아가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일까지, 국어원에서는 하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국립국어원에, 또 국어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것은요?

이제까지 안내해 주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 > 궁금한 우리말 >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그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동네에서 ‘달동네’라는 우리말을 만들었다. 달동네는 ‘산등성이나 산비탈 따위의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뜻한다. 70년이 지난 지금 이 단어는 우리가 즐겨 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말이다. 잿빛 동네를 덮은 하얀 눈, 그 위에 뜬 달이 아름다워 달동네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민중 운동가로 이름 높은 백기완 작가다. 그가 만든 단어들을 살펴보자면 노동자와 민중을 위로하며 평생을 헌신한 삶의 이력을 느낄 수 있다.



수만 년을 산 이 땅의 니나(민중) 이야기

지난 2월, 백기완 작가가 10년 만에 소설 『버선발 이야기』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시간에 이르는 심장 수술을 받은 뒤 병상에서 써 내려간 이야기다. 한 자 한 자 원고지에 꼭꼭 눌러 ‘버선발(벗은 발)’이라는 니나(민중)의 삶을 그렸다. 독재 정권 타파, 민주화 투쟁, 촛불 집회 등 굴곡진 한국 현대사와 나란히 한 그의 삶을 떠올리면 니나가 주인공인 이유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런데 백기완 작가가 들려주는 니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버선발 이야기』라는 이름이 참으로 뜻깊게 느껴진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는 글을 아는 사람, 지식인,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니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 이야기를 쓴 거요.”

말은 있었어도 글이 없던 니나의 삶을 보여 주려고 백기완 작가는 한자와 외래어가 없는 순우리말 표현으로 소설을 썼다. 달동네, 동아리, 새내기 등 다양한 우리말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킨 그이지만 니나가 썼던 말을 고집어내기까지 들인 공은 상당했다. 그 덕분에 독자들은 소설로 처음 접하는 니나들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말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버선발 이야기』가 그의 것이 아니고, 니나들의 이야기이므로 니나가 쓴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10년 전부터 짬을 내 조금씩 적은 니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빛을 볼 수 있었다.





니나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말



백기완 작가는 순우리말을 즐겨 써 온 작가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우리말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안타까워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늘 순우리말을 많이 써 왔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기억을 들려줬는데, 황당하게도 우리말을 썼다가 사람들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이야기다. 유년 시절, 동네 꼬마가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고 “속꽃이(다이빙) 한번 잘하네.”라고 말했다가 애들에게 꿀밤 맞은 적도 있고, 한국 전쟁 때 <달동네 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 주변 사람에게 돌렸다가 맞은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달동네 대신 ‘하교방촌’이라는 일본말이 있었는데, 일본말을 싫어하는 것을 보니 빨갱이가 분명하다며 경찰들이 때린 것이었다. 또 유신 정권 때 남산 제1터널 건설 당시 신문 방송에서 터널이란 말이 자주 나오길래 ‘맞뚜레(터널)’라는 단어를 권했다가 조국 근대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던 말을 썼을 뿐이요. 나는 국문학자도 아니요. 한글학자도 아니요. 우리말 쓰기 운동도 한 적이 없소. 우리말을 많이 쓰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이요. 우리말로 여러 번 글을 쓰고, 강연을 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도 경험했소. 우리말 쓰기 운동이나 학교 교육으로 우리말이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진짜 우리말을 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오.”

백기완 작가는 단순히 ‘우리말이 아름답다’라고 강조하기보다 우리말을 꼭 써야 하는 이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만년 동안 수천만 명이 쓴 우리말은 곧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며, 우리말이 사라지는 것은 문화와 문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료를 찾을 때마다 서재에 있는 낡고 두꺼운 국어사전을 꺼내 든다는 그는 국립국어원에서 사전을 만들고 우리말을 널리 쓰도록 힘쓰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진짜 눈길을 돌려야 하는 것은 니나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말이라고 강조했다.



니나 백기완 작가가 알고 싶은 우리말 세 단어

백기완 작가가 <쉽표, 마침표.>에 꼭 소개하고 싶은 말 세 개가 있다고 한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가고 그래도 길이 없으면 길을 내자’는 뜻의 ‘아리아리(파이팅)’, ‘벗이 나래를 폈다는 말로 세상 사람 모두가 벗이요, 이웃이다’라는 뜻의 ‘벗나래(세상)’, ‘새로운 것이 뒀다’는 뜻의 ‘새뜸(뉴스)’이다. 국어사전에는 없는, 백기완 작가가 제안한 말이지만 왠지 정감이 갔다.

“기록에 있어야 우리말인 줄 알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신기한 우리말이 많아요. 1954년, 농민운동을 할 때 이야기인데 폭풍 치는 동해안에서 한 할아버지와 제가 서 있었어요.

그분이 파도를 ‘물개’라고 하더군요. 또 예전에 우리 집 일을 도와줬던 경상도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하루는 고문을 받아 누워 있는 나를 보러 문익환 목사와 찾아왔어요. 문 목사가 나더러 현미밥을 먹으면 후유증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경상도 아주머니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맵쌀 대신 ‘매재미쌀’이라는 우리말이 있다는 거예요. 한글학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아름답고도 함축미가 들어 있는 우리말들을 찾아내서 알리고, 생활 속에서 자주 쓰도록 하는 게 우리말을 가꾸는 길이라고 생각하오.”

그는 최근에 순우리말로 쓴 세월호 추모 연작시「갯비나리」가 창작 음악극으로 공연되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가 가라앉아 참혹하게 죽은 사람들의 뜻을 기리고자 공연 이름을 <쪽빛의 노래>라고 붙였다.

물감을 만드는데 쓰이는 풀, ‘쪽’은 썩은 물이나 환경 파괴 물질이 들어오면 걸러 내는데, 이때 말갭게 맑아지는 빛을 ‘쪽빛’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참혹하게 바닷속에 갇혀 꽃다운 목숨을 잃었지만 한없이 맑아지는 자기 빛을 되찾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짐채만 한 물개가 내 마음을 덮쳤다. 그가 말하듯 우리말을 자주 쓰면, 그 순수한 우리말이 말들을 걸러 내는 쪽빛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까마득하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리아리하면 된다’ 백기완 작가가 알려 준 우리말로 문장을 속으로 만들며 대화의 매듭을 지었다.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 ▶ 놀라운우리말 ▶ 찰나의우리말

요즘 우리 귀에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막말’이다. 최근 들어 막말의 주된 진원지가 된 곳은 바로 정치권이다.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정치인들의 막말에 유권자인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자들이니 그에 맞는 품격을 지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 '막말'이란 무엇인가? 막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사전
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막말을 찾아보니,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이
라고 풀이되어 있다.

여기서 '함부로'란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
키는 대로 마구'라는 뜻이고, '마구'란 '몹시 세차게. 또는 아주 심
하게'이며, '속되다'란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라는 뜻이다. 이
뜻들을 바탕으로 '막말'의 풀이를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막말: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몹시
세차게 또는 아주 심하게 하거나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게 말하거
나 그렇게 하는 말

결국, 막말이란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마구 함부로 아주 심하게 내뿜는 천한 말'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막말의 풀이를 꼼꼼히 따져 보니 정치인들의 막말이 더욱 불쾌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들이 누구
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막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막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런데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막말은 이목을 끄는 효과가 있으니 막말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말이 이목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차근차근 생
각해 보자.

말로 이목을 끄는 데는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다. 어려운
방법이란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전달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설
득력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전달력 있게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전
달력 있게 전달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의 이목을 긴
시간 사로잡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용으로 이목을 끄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한편, 말로 손쉽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대체로 짧은 표현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방법을 요약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새롭거나 강하거나 어렵거나’.

‘새롭거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귀를 쫓긋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새로움에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인다. 이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신어나 유행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하거나’는 센 표현으로 주목을 끄는 방법이다. 고성과 막말, 욕설이 대표적으로 이 범주에 속한다. 크고 높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막말과 욕설은 듣는 사람을 자극한다. 끝으로 ‘어렵거나’는 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씬으로써 이른바 ‘있어 보이는’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생경한 외래어로 표현하거나 전문용어를 섞어서 말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듦으로써 화자의 지위를 청자의 지위보다 우월적으로 만들고 이로써 이목을 끌고 영향력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막말은 듣는 사람을 자극하여 손쉽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견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정치인들이 막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막말을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막말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언론의 관심 정도는 더 커진다.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말에는 깊은 함정이 숨어 있다. 막말이란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마구 함부로 내뱉는 말이다. 막말이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유다.

또한, 막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듣는 사람에게 막말로 들렸다면 그 말은 막말이 되는 것이다. 즉, 막말인지 아닌지는, 말을 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말한 사람이 아무리 막말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막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막말인 것이다. 물론,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막말로 들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막말로 들렸다고 우긴다고 해서 무조건 막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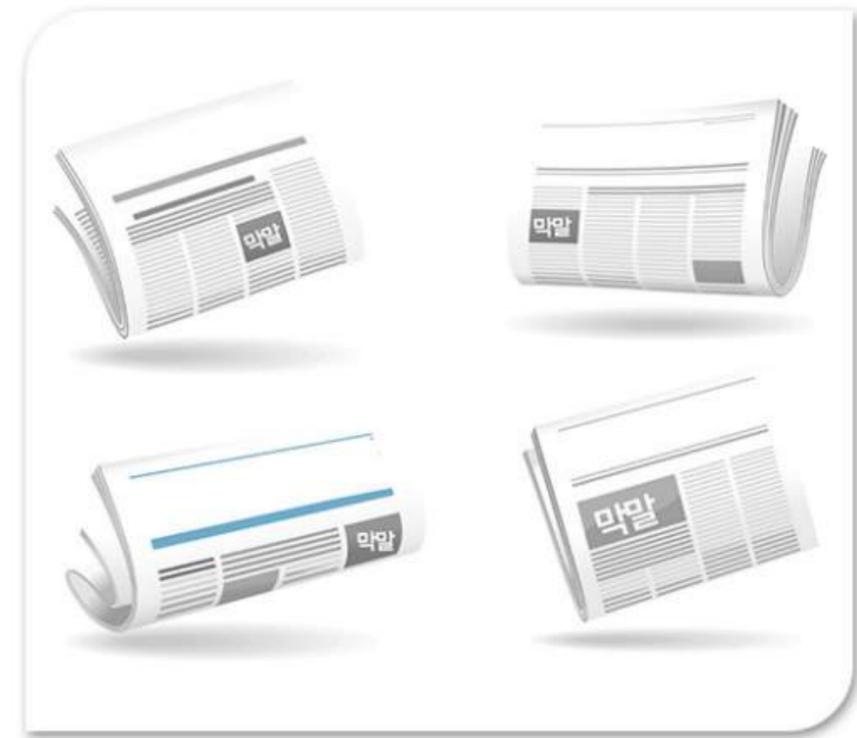
그래서 막말을 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말이 왜 막말이냐고 되물게 되어 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이 막말로 들릴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막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막말을 한 사람들에게 왜 막말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공통적인 반응은 자신은 막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막말을 한 사람에게 왜 막말을 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막말을 한 그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 막말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뻔뻔하거나 안하무인인 사람이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결국, 막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이 막말인 줄을 모르고 했든 혹은 그 말이 막말인 줄을 알면서도 했든 간에 모두 문제가 있다. 막말인 줄을 모르고 막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막말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안하무인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막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막말이 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막말이 많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막말을 다루는 빈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말뭉치(코퍼스)를 검색해 보았다.

1946년부터 2014년 사이의 동아일보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동아일보 말뭉치를 검색해 보니, 실제로 '막말'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말뭉치에서 '막말'의 사용 빈도는 1999년 이전 53년 동안 132회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후 14년 동안 1,443회나 되었다. 2000년 이후 신문 기사에서 '막말'이라는 단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 '막말'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말이 거칠어지고 언어 사용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막말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 것일까?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막말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용자들의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막말로 생각되지 않았던 말들이 막말로 들리게 되고, 그 결과 막말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변화도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게 되면 듣는 사람의 문제 제기가 훨씬 자유로울 수 있게 될 테니 말이다.



막말이 일견 많아진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말이 거칠어지고 언어 사용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 사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진전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언어 사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막말의 감수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서 막말을 향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훨씬 높아진 덕분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막말이라고 한다면 변명이나 발뺌보다는 자신의 막말 감수성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막말은 이목을 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수반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글: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 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우리말의 재구성

꾸러미 상품



역시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여행 꾸러미 상품들을
파는구나!

관광, 현장 체험, 숙소 등
현지에서도 꾸러미 상품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대.



아저씨, 오늘
꾸러미 상품이 뭐예요?

쌈배추, 양상추로 구성된
꾸러미 상품이 5천 원이에요!



자기야, 꾸러미 상품이라서
가격이 저렴해. 한번 보고 가자!

긴팔 셔츠가 세장에 만원!



똑똑한 소비자라면 현명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꾸러미 상품을 놓칠 수 없죠.
기업들도 이런 소비자를 겨냥해 전략적으로
꾸러미 상품을 활발히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꾸러미 상품' 또는 '기획 상품'은
'패키지 상품'을 다듬은 말로,
'여러 가지를 한 묶음으로
꾸러 놓은 상품'을 뜻합니다.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살펴보듯,
말할 때도 쉽고 편한 우리말을 쓴다면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